

# 함께 즐거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 399

2018.9.9

2018년 주님의교회 표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

(요한복음 3:16-17, 창세기 12:3, 마태복음 9:35)

## 오늘의 말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  
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  
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  
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_ 히브리서 6:11,12

## 오늘의 주요기사

- 2 성서칼럼
- 3 교회 소식
- 4 사역 소식
- 6 30주년 기념 특집 지상토론
- 7 목회칼럼
- 8 공동체 소식

## 교회 일정

- 9/9(주일) 미시오데이 찬양대 찬양사역  
(소망교도소)
- 9/12(수) 겨자씨 인도자 교육 2학기 시작
- 9/16(주일) 정기당회
- 9/29(토) 신병 진중세례식(23사단)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2018 주님의교회 전교인 설문조사

## 당신의 참여가 교회의 미래를 만듭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교인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교회 안팎의 환경 변화, 교인들의 소망과 비전을 파악하여,  
교회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하고 건강한 교회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 이 설문조사는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은 교인 상황,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제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정보는 일절 요청하지 않습니다.
- 설문조사에는 약 10~20분이 걸립니다. 예배 후, 혹은 댁에서 작성하신 후 교회 로비에 비치된 회수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설문지 봉투의 개봉과 작성은  
반드시 예배를 마친 후에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 전교인 설문조사**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주님의교회 첫 전교인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3주간 총 4,217부가 배포되었으며 이중 2,218부가 회수되어 52.6%라는 놀라운 회수율을 보였다. 주님의교회에 출석하는 비등록교인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모집단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교적부상 등록교인 대비 응답율로는 25.4%에 해당한다. 특히 50대 이상과 여성 교우의 참여가 높았다.

##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하반기 겨자씨모임 개강을 맞아 겨  
자씨인도자수련회가 지난 8월 31일  
금요일 오후부터 9월 1일 토요일 오  
전까지 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수련  
회에는 겨자씨 인도자와 권찰, 겨자  
목, 겨자채 돌봄이 등 240여 명이 참  
여했다. 첫날 저녁에는 함께 교회 식  
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각 교구별  
로 흩어져 잠시 상견례 시간을 가졌  
고, 이후 지하 중예배실에서 겨자씨  
인도자 리더십에 관한 교육(강사: 황  
바울 목사)과 겨자씨모임의 본질과  
실제에 관한 특강(강사: 김화수 담임  
목사)이 이어졌다.

“함즐함울하는 겨자씨”라는 제목  
으로 진행된 이날 주요 특강에서 김

화수 담임목사는 겨자씨모임의 교  
회론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  
며, 주님의교회 겨자씨 모임의 목적  
과 역할은 형식과 습관이 된 신앙을  
탈피하여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십  
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변화의 진원지가 되는 것이  
라고 정의했다. 또한 교회는 사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일상  
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일에 겨자씨모임  
이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화수 담임목사는 이러한 겨자씨  
모임을 위해 우리는 “말씀을 큐티하  
는 겨자씨”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

며, 실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겨자  
씨식구들이 매일 말씀을 나누며 삶  
을 공유할지 온라인 큐티 나눔의 실  
례 등을 소개하며 함께 고민하는 시  
간을 가졌다.

둘째 날 아침에도 겨자씨인도자들  
은 교회 식당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한 뒤 소예배실에 모여 공동체 레크  
레이션(진행: 손경민 전도사)을 하  
며 즐겁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시간에는 대예배실에  
서 진행된 <전교인 가정세미나 “가  
정과 다음세대”>(강사: 신형섭 교수)  
에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이틀간의  
겨자씨인도자수련회 일정을 마감  
했다.

함즐함울

## 가정세미나 “가정과 다음 세대” 열려

주님의교회에서도 가정과 다음 세  
대 교육의 연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  
지고 있다. 지난 9월 1일 토요일(오  
전 10:00~11:30), 주님의교회 대예배  
실에서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가  
정세미나 “가정과 다음세대”>가 진

행되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  
교교육과 신형섭 교수의 강의로 진  
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겨자씨인도  
자 등을 포함한 전교인이 참석하여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에 있어 가  
정과 교회의 역할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형섭 교수는 먼저 다양한 통계자  
료와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국교회  
의 다음세대 양육이 근본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2면에 계속

1면에서 계속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정-교회 연계모델>을 제시하며, 성서와 교회를 통해 드러난 가정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형섭 교수는 가정신앙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정예배를 언급하며, “가정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설명

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써의 가정예배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가정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건’이 일어났는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예배는 주일예배의 축소판이 아니라 주일예배의 연장선

이 되어야 하고,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숙제시간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예배는 단순한 교리를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러한 가정예배를 위해서는 부모의 큰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

다. 신형섭 교수는 모든 부모세대는 다음세대를 향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가정신앙교육을 위한 우리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함줄함울

## 가정 중심 세대 통합 교육, D6컨퍼런스 참여

김화수 담임목사 외 교육부, 교구 교육자 12명은 9월 3일 월요일부터 9월 5일 수요일까지 이촌동 충신교회(담임 이진호 목사)에서 열린 “제1회 한국D6컨퍼런스(D6 Conference in Korea)”에 참여했다. D6는 영어 “Deuteronomy

chapter 6”(신명기 6장)의 약자로 ‘쉐마’라 불리는 신명기 6장 4-9절 말씀에 기초하여 어떻게 가정을 바로 세우고 다음세대에 신앙을 전수할지 교육하고 논의하는 세미나이다. 미국에서 론 헌터 박사가 중심이 되어 펼쳐지고 있

는 “D6컨퍼런스”는 가정 중심적 세대 통합 기독교교육운동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이번 한국대회에는 “D6패밀리” 대표 론 헌터 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주 강사로 강의하였고, 가정과 다음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며 연

구하던 한국의 사역자와 연구자들이 다수 참여하여 다음세대 사역에 관한 세계적 추세와 한국 고유의 상황에 관한 다양한 보고와 이론을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줄함울

### 성서칼럼 돌부리

## 가인과 아벨(창세기4:1-16) 2

### 3. 떨어진 얼굴과 빈말

가인은 아벨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시선에 화를 낸다. 그리고 “안색이 변하”고 만다(5,6절). 이 부분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가인이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라는 의미이다. 그렇기에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반문하신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7절) 여기서 가인이 얼굴을 떨군다는 것은 제대로 된 시선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가인은 아벨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않고 얼굴을 마주하지도 않는다. 모두에게 있어 아벨은 원래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존재였고, 가인에게 있어서도 이는 마땅가지였기 때문이다. 얼굴을 들고 시선을 마주함은 우호적인 관계의 상징이다. 가인은 얼굴을 떨구고 흘려봄으로써 아벨과 올바른 관계, “그의 형제”로서의 관계를 부정한다.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하다. <네 얼굴을 들어라>.

얼굴을 떨군 가인의 태도는 아벨을 향한 그의 말에도 드러난다. 우리말 구약성서의 대본이 되는 히브리어 성서는 8절에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라고 기록하지만, 그 말의 내용을 생략해 버린다. 다른 부분에서 대화를 이렇게 묘사하

는 법은 없다. 이 부분이 유일하다. 아벨을 향한 가인의 말은 텅 비어 있다. 이러한 공허한 대화는 마치 아벨을 향한 가인의 시선처럼 철저한 외면과 껍데기뿐인 관계를 닮았다. 가인의 외면과 빈말에도 아벨은 아무 말이 없다. 아벨은 가인의 형제이지만, 누구도 가인을 아벨의 형제라 부르는 법이 없다. 아벨에게는 주체가 될 권리도, 말할 권한과 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결말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8절) 얼굴을 들어 자기 형제를 바라보는 대신, 아벨에게 참된 말을 건네는 대신, 가인은 시선을 내리깔고 들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아벨을 살해한다. 그러나 이미 살인 전에도 가인에게 있어 아벨은 죽은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주시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주시하지 않으신 사건은 이 살인 사건의 ‘원인’이 아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러한 관계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계에서, 현실의 두꺼운 표면에 묻힌 아벨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잠시나마 돌출한 하나의 ‘탈-은폐’ 사건이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가인에게 일그러진 관계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시려 했다.

### 4. 가인의 관계와 임무

창세기가 그리는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관계 속에 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간이 처한 이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깨워준다. 세계 안에 처한 인간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세계(땅)와 관계를 맺고,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창세기2:7). 그런데 잊기 쉬운(잊어도 무방해 보이는) 또 하나의 관계,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관계를 가늠하게 하는 핵심적인 관계가 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존재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형제”였던 아벨과의 관계이다(2절). 창세기 4장의 서두를 여는 가인의 이야기는 2~3장에서 아담에게 야웨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 곧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2:15)” 하신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만든다. 마치 태초의 인간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태어난(1절) 가인은 땅을 “농사하는”(2:15의 “경작하는”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 자였고(2절), “그의 형제” 아벨을 “지키는”(2:15의 “지키는”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 자로 하나님 앞에서 있다(9절). 그러나 아벨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아벨은 언제나 “그의 아우”라 불리는 철저한 수동적 객체이자, 그 관계조차 외면당하는

비존재이기 때문이다. 비록 성서 기자는 아벨을 “그의 아우”(2,8절)라고 세 번이나 언급하고, 하나님도 “네 아우”(9,10,11절)라고 세 번이나 강조하지만, 가인은 다만 그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거짓말하면서 단 한 번 “내 아우”라고 내뱉을 뿐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9절) 철저한 자기중심적 사고 속에 가인은 자기 소유 땅을 농사하고(=경작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올렸지만, 그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인간 존재, 곧 “그의 형제”를 지킬 생각은 전혀 없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무심한 가인의 시선과 살인이라는 극적인 결말이 결국 하나의 사건임을 말해준다.

창조 때로부터 이 세상은 가인의 세상이다.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신 아벨의 하나님은 두꺼운 지표 아래 파묻힌 그들을 주시하신다. 매끈한 지표에 그 피맺힌 얼룩을 드러내 우리 발이 걸리게 하신다. 이 불편한 하나님의 시선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손경민 전도사

<성서칼럼 돌부리>는 돌부리같이 우리에게 돌진해오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넓게 이해해 보는 코너입니다.

교회 소식

# 창립 30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 마쳐

회수율 52.6%, 전교인 대비 응답률 25.4%

## 창립 후 최초의 전교인 설문조사

주님의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8월 19일에서 9월 2일까지 전교인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오면서 형성된 교회 공동체의 모든 것을 파악하여, 향후 목회와 사역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이 설문조사 결과, 총 4,217부 배포, 2,218부 회수, 회수율 52.6%로 잠정 집계되었다. 교회에 출석하는 비등록교인도 제한하지 않고 설문조사에 포함하여, 교회에 실제로 출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모집단의 규모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7월 31일 기준 교적부상 등록교인 수인 8,74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25.4%의 높은 응답률을 기록

해서 설문조사의 신뢰도가 높을 것임을 시사했다.

설문지의 문항은 총 106 문항으로, 자유의견 1문항을 제외하고는 객관식으로 만들어졌으며, 교인 기본사항에 대하여 21문항,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하여 29문항, 신앙 생활에 대하여 21문항, 교회의 여러 제도와 시스템에 대하여 34문항이 배치되어, 공동체 구성원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미등록교인도 110명이나 참여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기본사항이 기록되지 않아 분석이 어려운 무효 설문지 9부를 제외한 나머지 설문지는 통계 분석을 위한 코딩 작업에 착수,

입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차 설문응답자 분포를 보면, 미등록자도 110명이나 응답한 것이 눈에 띈다. 연령대로는 교적부상 51%를 차지하는 50세 이상의 응답자가 72%(1,562부)에 이르러, 연세가 많은 분들의 관심이 49세 이하의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교적부상 55%를 차지하는 여성 교우들의 응답률이 60%에 이르러, 남성 교우들보다 여성 교우들이 더 적극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하여 의사 표현을 했음을 알 수 있다.

## 신뢰수준도 높을 것으로 기대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도는 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의 신뢰

수준은 최대허용오차에 따르게 되는데, 최대허용오차는 신뢰구간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오차의 폭을 의미하며, 보통 “신뢰수준% +/- 오차%”로 표현한다. 최대허용오차는 표본의 수가 많을수록 감소되는데,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 수는 2,209부여서 최대허용오차는 +/- 2.5%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주요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는 창립 3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당회에 보고될 예정이며, 이후 목회와 사역, 제도 개선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딩 결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함줄함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함줄함울

##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

| 연령대    | 명    | %   | 여자(명) | %  | 직분  |    |      |    |     |     | 미등록자 |
|--------|------|-----|-------|----|-----|----|------|----|-----|-----|------|
|        |      |     | 남자(명) | %  | 성도  | %  | 서리집사 | %  | 항존직 | %   |      |
| 19~29세 | 112  | 5   | 72    | 64 | 68  | 68 | 0    | 0  | 0   | 0   | 6    |
|        |      |     | 40    | 36 | 32  | 32 | 0    | 0  | 0   | 0   | 5    |
| 30~39세 | 166  | 8   | 107   | 64 | 70  | 67 | 32   | 60 | 0   | 0   | 11   |
|        |      |     | 59    | 36 | 34  | 33 | 21   | 40 | 0   | 0   | 2    |
| 40~49세 | 335  | 15  | 231   | 69 | 70  | 61 | 147  | 75 | 0   | 0   | 15   |
|        |      |     | 104   | 31 | 44  | 39 | 48   | 25 | 7   | 100 | 11   |
| 50~60세 | 623  | 29  | 396   | 64 | 69  | 64 | 259  | 68 | 45  | 47  | 14   |
|        |      |     | 227   | 36 | 38  | 36 | 123  | 32 | 51  | 53  | 13   |
| 61~65세 | 387  | 18  | 233   | 60 | 30  | 48 | 123  | 64 | 66  | 61  | 4    |
|        |      |     | 154   | 40 | 33  | 52 | 68   | 36 | 42  | 39  | 8    |
| 66~75세 | 436  | 20  | 230   | 53 | 39  | 45 | 76   | 52 | 94  | 45  | 13   |
|        |      |     | 206   | 47 | 47  | 55 | 69   | 52 | 73  | 56  | 6    |
| 76세 이상 | 116  | 5   | 40    | 34 | 9   | 27 | 11   | 41 | 15  | 35  | 2    |
|        |      |     | 76    | 66 | 24  | 73 | 16   | 59 | 28  | 65  | 0    |
| 합계     | 2175 | 100 | 1309  | 60 | 355 | 58 | 648  | 65 | 220 | 52  | 110  |
|        |      |     | 866   | 40 | 252 | 42 | 345  | 35 | 201 | 48  |      |

교회 소식

#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교회에서는 지난 8월 말, 1층 로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여러 이유로 심장의 박동이 멈추었을 때 응급조치를 위한 기기이다. 누군가 쓰러져 의식을 잃고 호흡이 비정상적일 때 사용한다. 사용 방법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1. 환자의 양 어깨를 두드려 반응을 확인해

서, 의식이 없고 호흡이 비정상적이면, 119 신고와 함께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한다.

2. 두 손을 모아 가슴 중앙에 대고 1초에 2번꼴로 압박을 실시하며 인공호흡을 동시에 시행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가 오면 전원을 켜고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부착한다. 소아의 경우 앞가슴 중앙과 등 중앙에 부착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의 음성 안내에 따라 전기충격을 실시한다. “분석중, 접촉금지” 일 때는 떨어지고, “전기충격 필요합니다”의 경우, 쇼크버튼을 누른다.

5. 이후 자동심장충격기의 안내에 따라 가슴압박을 통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작동을 119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실시한다.



번식교회 소식

## 광야의교회 창립 7주년 맞아



2011년 8월 14일 창립했던 번식교회 J 주님의교회가 '광야의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2018년 8월 26일 창립 7주년을 맞았다. 주님의교회에서 부목사를 지낸 임창진 목사가 부임한 이후 교회의 중심을 도서관으로 꾸미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교회로 탈바꿈

했다.

창립 7주년을 맞은 이날, 100여 명의 성도와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설교는 주님의교회 부목사를 지내고 장로교신학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김정형 교수가 맡았고, 주님의교회에서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함글함글

여름특집 | 청년부

## 2018 청년부 여름 수련회, Renew : All 찬양집회

청년부는 지난 8월 16-18일(목-토)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the Light of the Lord'를 주제로 한 이번 수련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사명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주강사로 말씀을 전해 주신 송주형 목사(청주CCC대표)는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청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위에서만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빛을 나눌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청년들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계속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한편, 수련회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 9

월 1일(토) 청년부는 Renew:All 찬양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찬양집회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집회 당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날 찬양 인도자로 함께한 강명식 교수(송실대 CCM학과)는 집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청년 그리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120여명의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가을을 시작하는 이 날부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김요한 전도사 / 청년부

감사 편지

## 주님의교회 교우님들께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이 무렵 임시당회장직을 수행했던 김성식 목사입니다.

주님의교회 담임목사님과 당회에서 결정해 주시고 교우님들께서 많은 책들을 기증해 주신 덕분에 저희 교회에선 지난 5월 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었습니다. 함글함글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도서관 건물은 제가 섬기는 교회가 소유한 신축 3층 건물인데 1층은 열람실, 2층은 강당과 스터디룸, 3층은 휴게실로 꾸며져 있고 현재의 장서 수는 대략 1~2만 권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정도가 주님의 교회 교우님들께서 보내주신 책들입니다. 2층 강당은 주중에는 도서관 강당으로, 주일에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 방식입니다.

교우님들께서 보내주신 책들을 서가에 꽂으면서 두 번 놀랐습니다. 보내주신 책들이 대부분 신간이어서 놀랐고, 다음에는 책들 수준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신앙서적들 가운데는 신학자들이나 불 책들도 적지 않았습니 다. 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책임감과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아직은 홍보가 덜 되어 도서관 내방객이 많지는 않지만 오시는 분들마다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을 훑어보곤 "읽고 싶은 좋은 책들이 참 많네요"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주님의교회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서관 이름을 "하남 소나무 도서관"이라고 정한 데는 약간의 사연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 말씀을 주셨는데 13절에 나오는 "소나무"를 도서관 이름으로 정한 것입니다. 소나무와 같은 인재를 양성하는 도서관으로 키워가자는 뜻으로 그러했습니다. 도서관 주소는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1003번지"이고 개관시간은 화요일에서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입니다.

주님의교회 교우님들의 내방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오시는 분들께는 정성껏 내린 드립커피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어떤 사람은 만 권의 책을 읽고 운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가정주부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정이 주저앉았는데 2천권의 책을 읽는 동안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좋은 독서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담임목사님, 당회원님들, 그리고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소나무도서관 내방을 환영합니다.

김성식 목사



의료사역 간증

## 베트남 롱안 세계로 병원 의료 사역을 마치고

2017년 12월과 올 해 8월 두차례 롱안 세계로 병원에 의료 봉사 다녀왔습니다. 롱안은 베트남 남부 호치민 시 북서쪽에 면한 공업지대입니다. 10년 전 우리나라 의료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우면서 병원 앞으로 도로를 냈고, 그 도로를 따라 주택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10여명의 의사, 간호사 등 사역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10여 명의 베트남 현지 의사와 수십명의 간호사 등을 고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400여 명의 외래 환자와 수십명의 입원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종합 병원으로서 병원을 통한 공화사역, 집짓기 및 고엽제 진료환자 진료, 언청이 수술 등 복지 사업과 교회 설립을 통한 복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베트남 진료를 다섯 번 다녀왔습니다만, 2011년 처음으로 베트남 비전트립을 다녀온 후에는 주님의교회의 집중 사역지라 꼭 의료팀이 가야하는 베트남 비전트립에 자원하는 의사가 부족하거나 없을 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다니는 의사가 200명 정도 된다는 향간의 소문도 있지만 비전트립을 준비할 때는 항상 하늘만 쳐다 봐야 하는 천수답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비전트립에 있어서의 의료팀은 효과적인 진료 장비 없이 청진기와 혈압계만으로 수백 명의 환자를 2~3일 내에 진료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10여개 이상의 이민 가방 분량의약품 및 장비를 구매하고, 수송하고, 조제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 외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만큼 받은 은혜도 큼니다만, 항상 뭔가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외 병원 진료는 비전트립 내의 의

료팀 속에서 느끼는 아쉬움을 해결하고, 좀 더 효율적인 진료사역을 개발해보자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는데, 마침 롱안 세계로 병원 우석정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롱안 지역이 베트남 전 당시에 고엽제가 많이 뿌려진 곳으로 고엽제 피해 아동이 많으니 이들에 대한 진료와 더불어 복강경 장비는 있는데 베트남인 의사가 복강경 수술 경험이 없어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니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해오셨고, 성모병원 외과 과장님인 박일영 집사님이 흔쾌히 수락하셔서 성사 되었습니다. 비전트립은 수십 명의 의료팀, 이민 가방 수십 개 분량의 짐이 있어 사전에 여러번 모이고, 출발 당일에도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했는데, 병원급 진료는 참가자 각자 진료를 마치고 저녁에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외과 전문의 박일영 집사님, 비뇨기과 전문의 서준규 장로님, 치과 변춘석 집사님과 변영협 군, 재활의학과 의사인 저와 베트남 의사로 인하여 대병원에서 비뇨기과 수련을 하고 있는 닥터 민이 공항에서 처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는 치과 의사인 변춘석 집사님과 변영협 군은 치과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위생사 교육을 진행하였고, 저는 재활치료실로 이동하여 뇌성마비 아동 진료와 중풍 환자 진료와 함께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베트남엔 물리치료사 제도가 없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준규 장로님과 박일영 집사님의 환자들을 진료한 후 수술 대상자를 선정하여 베트남인 의사와 함께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인

의 통역으로 언어의 장벽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전문의 과정이 2년이라 수련을 마쳤다고 해도 기본적인 수술 외엔 잘 하지 못합니다. 세계로 병원 외과 전문의도 복강경 수술을 접할 기회가 없었으니 병원에 복강경 장비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복강경 수술이 아니라도 담당 절제술은 숙련된 전문의 아니면 할 수 없는 수술입니다. 마침 박일영 집사님은 담낭 절제술 뿐만 아니라 복강경에도 매우 능숙한 상태라 금방 끝낼 수 있는데도, 베트남인 의사에게 일일이 가르쳐주고 베트남 의사가 직접 집도하도록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고, 무사하게 수술이 끝났습니다. 진료 후에는 병원 내 게스트 하우스에서 함께 숙박을 하고, 새벽에는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새벽 예배를 드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다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산부인과 의사인 홍승호 집사님과 저랑 둘이서만 짧게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비전트립에 참가하는 의사를 구할 수 없어서 제가 비전트립에도 가야했기에 가을에 다시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란 기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뇌성마비 아동과 뇌졸중 환자 진료 및 재활치료팀 교육을 시행했고, 홍승호 집사님은 베트남인 의사에 대해 교제와 부인과적인 최신 경향에 대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올 가을에는 서준규 장로님 중심으로 베트남의 또 다른 병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현지의 의료인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준비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자란 전주에는 예수 병원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전북 지역의 의료 질적으로 선도하는 병원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병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병원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선교 병원이 많이 있고, 한 때는 그리고 지금도 의료의 질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롱안 세계로 병원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저희 주님 의교회 의료선교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베트남 현지 의료인과 교류하면서 그들에게 선진 의료기술을 가르쳐주고, 세계로 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 장비에 대한 지원도 해야겠지요. 이렇게 쓰고 보니 비전트립은 힘들고 가고 싶지 않은 일이고, 병원급 진료는 쉽고 가고 싶은 일로 읽힐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료진료가 수백 명의 사람을 모으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고, 예수님의 이름도 꺼내기 힘든 해외에 나가있는 선교사님들에겐 1년에 몇 차례라도 이렇게 수백 명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절실할 것입니다. 그 곳에 의료진을 더 많이 파견할 수 있으려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작은 결단과 희생으로 쉽게 진료를 통해 선교사역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보람과 영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의료선교부가 활성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곧 주님의 교회의 해외 선교 역량의 강화로 연결되고 더욱 힘차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소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박준명 집사 / 의료선교부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기획 : 함글함글 지상토론 “한국사회와 주님의교회 30년” ❶

# 한국사회,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 교회가 섬겨야 할 사회를 생각한다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기획 “한국사회와 주님의교회 30년” 그 첫 번째 글을 이번 호에 실습니다. 이번 글이나 발제 주제에 대한 의견을 글로 써서 보내 주시면 다음 호에 수록하여 함께 생각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뿐 아니라, 한국사회와 교회에 대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기고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amletter@daum.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발제 순서

#### 1. 한국사회,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교회가 사회와 함께해야 하는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창립 후 30년간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봅니다.

#### 2. 소통\_교회의 언어는 사회와 소통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에서 교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용어와 일상어와의 차이를 검토하면서 사회와 소통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 3. 정치\_민주주의와 기독교는 동행하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남북 평화의 시대를 맞아 그리스도인의 할 일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해 봅니다.

#### 4. 경제\_이 시대의 경제구조를 교회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사회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도 경제의 주체이자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지금 이 사회의 경제적 구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 5. 교육\_그리스도인의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급변하는 이 사회의 다양한 속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 6. 가치\_세상의 다양한 가치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가치들이 출몰하고 충돌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다양한 가치들을 바라보고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 7. 환경\_그리스도인에게 자연은 무엇인가

자연 보호와 개발의 문제, 원전과 에너지 문제, 생명권과 동물권 등,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자연에 대해 성찰해야 할 덕목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 난민들이 봄비는 가건물이 될 것인가

〈함글함글〉에서는 지난 2015년, 주님의교회 27주년기념 특집기획으로 “주님의교회,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제하의 지상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교회의 초심을 되살려, ‘주님의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날로 변화하는 시대를 맞아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통해, 주님이 주신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해 보고자 했던 기획이었다.

그 바탕에는 〈소명〉을 쓴 오스기니스의 고백과 같은 슬픈 진단이 있었다.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이탈하고,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선전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악한 모습을 공공연하게 보여 온 이야기가 바로 교회사”임을 고백했다. 창립 당시 교회의 본질을 잃고 외형과 규모의 성장에만 몰두하던 당시 한국 교회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주님의교회 역시 초심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다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 지상토론은 351호(2015. 7. 5)에서 시작하여 358호(2015. 12. 20)에 이르기까지 여섯 번에 걸쳐 “주님의교회 정체성의 내면”, “교회사적 의미로 본 주님의교회”, “교회 안에서 본 주님의교회”, “교회 밖에서 본 주님의교회”, “사회적 공간에서의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의 바람직한 미래”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교회 내부 기고 외에도 〈주님의교회 25년사〉 필자인 최영재 목사, 이희천 정신여고 교장, 실천신학대학원 정재영 교수, 송실대 김희권 교수, 박춘희 송파구청장, 장신대 장신근 교수, 지동소 전 정신여고 교장 같은 분들이 참여했다.

이 지상토론을 통해, 주님의교회가 다룬 타락한 교회를 피해 온 “주인의식 없이 무임승차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난민들이 봄비는 가건물”에 머무르거나 “제도 개혁 자체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뼈아픈 조언(김희권 교수)을 들은 바 있다. 또한 “미래에 다가올 중대

한 도전들을 예상해” 보고, “강한 신앙적 정체성과 더불어 세상과의 관계적이며 소통적 능력을 지닌 공동체”가 되어 “방황하고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에 계속해서 대안적 미래를 제시하는 주님의교회”가 되라는 권면(장신근 교수)을 받은 바 있다.

###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까닭

그리고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교단과 교회의 올해 표어는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로 정해졌다. 지난 27주년 때의 특집이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내면을 향한 시선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바깥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함글함글〉에서는 눈을 좀 더 높이 들어 사회와 교회를 동시에 살펴보려 한다.

성경은 세상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 있음을 말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요 1:14)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현실 속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 일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세속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거나 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역사에 대한 신학적 인식을 가졌다는 것일 뿐이다.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다. 역사로부터 분리된 교회는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성경은 세상이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 있다고 분명히 증언한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같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라는 말씀 속에서 세상을 섬기려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모여 있을 때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교인이 되는 것이지 진

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은 아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성전에만 계시고 세상 속에는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여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지만, 이는 그리스도의 뜻과 다르다.

바른 신앙생활은 교회에 모여 있을 때나 세상 속으로 흩어졌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의 건물과 공간 속에 갇힌 종교적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특히 이 시대와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보낸 받은 교회공동체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이웃과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 때로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한다

〈미디어의 이해〉를 쓴 마셜 매클루언은, 물고기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가지가 ‘물’이라고 말했다. 물고기가 헤엄을 치는 영역을 인식하게 할 반환경적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구술 문화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된 것도 문자를 발명한 다음의 일이다. 아마도 한반도에 살았던 보편적인 중세 한국인들이 그들의 모국어와 중국의 문자였던 한자의 태생적 차이에서 비롯된 불편을 비로소 실감하게 된 것도 한글이라는 한국어 전용 문자가 만들어진 다음의 일이었을 것이다. 답습된 중화주의의 그늘 아래에서 오랫동안 잠복해 있던 그 불편함을 감지하고 해결책으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성군이라고 부르는 까닭을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안다. 그동안, 사회에는 주님의교회 창립 당시인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88년 주님의교회가 창립되었을 때만 해도,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는 세계 여러 나라를

목회 칼럼

## 비인격적인 태도와 정의, 복음

특정인들의 갑질과 막말로 인해, 지금 세간은 떠들썩할 뿐 아니라 소위 권위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런 행태들이 없었던 말인가? 아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이전 시대를 살았던 연약하고 힘없던 사람들이 당했을 고통과 힘겨움이 상상이 되어 마음이 쓰려온다.

성경은 줄기차게 정의에 대해서 말한다. 정의란 쉽게 말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일반은총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즉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 사람으로 대우받는 게 정의라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그에게 그걸 바라셨기 때문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 스스로를 대우하며 산다. 이 땅의 구조는 물질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은, 사람을 우선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기에 가지지 못한 사람은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갑질과 막말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고통을 겪는 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하고 이것에 우리는 반기를 들어야 한다. 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기 때문이다. 이 땅의 사람이 이런

사람을 변호하거나 따뜻하게 대하지 않으니, 그 사람을 위해 소리 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신 것이다. 과부, 고아,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이다.

최소한 이런 정의가 구조적으로 뒷받침이 될 때, 억울한 사람이 최소화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가 정착이 될 때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으로서의 삶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무너지고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를 회복해 원 상태로 돌려놓는 강한 힘이 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람의 마음을 에덴의 상태로 돌



려놓고 그 사람을 통해 정의가 꽃피어 있는 사회로 복음은 우리를 이끈다. 이 일에,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았다.

최방은 목사

두 진영으로 나누는 높은 장벽이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권이 개방되면서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경계는 곧 휘발되었다. 이미 1990년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였던 소련과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고, 1992년에는 중국과 수교를 맺었으며, 이후 베트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와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할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다.

주님의교회 창립 이듬해인 1989년 등장한 월드와이드웹은 인터넷의 대중화를 한 단계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다. 일반인들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브라우저가 1993년 처음 개발되었고, 1994년에는 야후가 서비스를 시작했다. 1998년에는 지금 검색엔진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구글이 탄생했다. 이와 함께 1992년에 탄생한 스마트폰은 인터넷과 결합하여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미국에 이어 금메달 12개로 메달 순위 4위를 차지했다. 전쟁의 후유증에 피폐했던 나라가 불과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세계 4위에 올랐던 이 사건은 한국 사회가 그동안 서구 선진 사회에 대해 가졌던 콤플렉스를 일거에 날려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1989년, 한국은 대외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발전했고, 1990년에는 자본과 금융시장을 개방했다. 1997년 IMF 구제금융을 받기도 했지만, 경제성장 속도가 줄어들지는 않아 지금은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흐름은 한국 사회의 여러 현상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증산, 수출, 건설”과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는 말이 거리와 학교에 게시되어 있을 만큼 근대화는 중요한 화두였고, 경쟁의 대상은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올림픽의 해가 지나고,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붕괴하면서 거대 서사의 시대도 저물었다. 이후 한국 사회도 거대 서사보다 작은 이야기들이, 국가적 차원보다 개인적 수준의 소소함이, 합리적 사고보다 섬세한 감성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의 징후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새로운 상상력과 소통방식의 급격한 변화를 낳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환경 문제, 실업 문제와 빈부의 격차,

가족의 해체와 인간관계의 재구성 등의 현상은 전통과 관습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실로 지난 30년은 그전의 30년과 달랐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의 30년은 지난 30년과도 또 다를 것이라고 보인다.

### 우리가 함께 나눌 여섯 가지 키워드

그러나 교회 안의 풍경은 30년 전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진단이다. 19세기의 제도를 답습한 채, 20세기의 관습과 관행에 익숙해진 교인들이 21세기의 사회에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세습 문제를 비롯, 교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추문들은 30년 전과 같거나 오히려 더 악화된 상태에서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그대로 사회에 생중계되고 있다. 더 나아가 기독교는 때로 ‘개독교’로 일컬어지는 비아냥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한 상태다.

교회 안의 삶도 3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안과 밖을 경계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하는 경향도 여전히 있고, 지하철에서는 아직도 “불신 지옥 예수천국”이라는 상투어를 소리 높여 외치는 분들이 한국 기독교의 한 상징처럼 눈에 띈다. 사회와 세상에 대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전제가 선교와 전도의 기본 개념으로 고착되었다. 지난 30년간 일어난 사회

의 변화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교회가 세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참드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려는 눈이 없으니 보이는 것도 없는 셈이다. 사회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지,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교회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주님의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아마도 주님의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도 곧 화석으로 남을 것이다. 교회가 섬겨야 할 사회, 그것은 곧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신앙의 현장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번 지상 토론의 가장 첫 번째 주제는 ‘소통’이다. 교회의 언어가 사회와 소통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다음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정치’, ‘경제’와 교회와의 관계를 다루고, 다음 세대를 위한 키워드로 ‘교육’을 골랐다. 다변화하는 세상을 좀 더 다채롭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치’를 다섯 번째에 두었고,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화두 ‘환경’ 문제를 여섯 번째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여러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기고, 인터뷰, 좌담 등 여러 형태의 토론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기고, 토론을 기다린다.

함글함글

● 이 글의 일부는 제102회 총회 세미나 자료집에서 도움 받았음을 밝힙니다.

사역팀 소개 | 루아찬양대

## 보이지 않는 곳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사역팀 루아찬양대에서는 매월 첫주일 삼성 서울 병원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맡는다. 주일 오후 3시에 별관 4층 직원 식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기쁘게 환우들에게 사랑을 담은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를 나누며 환우들의 쾌유를 빈다. 찬양대원들은 매달 마지막 주 주일에 함께 모여서 연습을 하며 기도를 나눈다. 루아찬양대 봉사자들은 주중에 각 여러 봉사처에서 봉사를 하며 호스피스 봉사자로 책임을 가지며 병상의 환우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다.

함글함글

## 함글함글,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신문 <함글함글>은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값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간증, 사역 후기, 교회 안의 미담이나 칼럼, 기행문, 단상 등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같이 나누면 좋은 어떤 글이라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지면 사정에 맞추어 게재합니다.

함글함글

알립니다

2019년 <함글함글>을 새롭게 빛낼  
역량 있고 젊은 편집장과 기사를 모집합니다

주님의교회에서 문서선교를 위해 펴내는 격주간 교회 신문인 <함글함글>의 편집장과 기사를 모집합니다.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매체로, 하나님과의 소통, 교회와의 소통, 성도간의 소통을 위한 지면으로 구성됩니다.

- 세례자이며 주님의교회에 등록한 지 3년 이상 되는 분.
- 신문사, 잡지사, 학보사, 출판사에서 취재, 편집 경험이 있거나, 없지만 배우고 싶은 분.
- 교회 내 여러 사역 활동을 두루 알고 있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분.
-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하며, <함글함글> 기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
- 토요일 아침 8시에 있는 편집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
- 만 50세 미만이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

2019년을 앞두고, 새로운 감각과 관점으로 <함글함글>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역량 있는 교우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위에 적힌 여러 조건에 맞아서 사역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hamletter@daum.net 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함글함글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2018 통일선교 바자회

2018  
하나님의 나라, 통일 장마당!

10.20(토) 9:30 AM ~ 3:00 PM

“통일 장마당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가을, 주님의교회는 2년 만에 다시 통일선교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분단된 이 민족의 치유와 회복, 평화를 소망하며!

삼천리 방방곡곡 온 겨레가 함께 예배할 그날을 바라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섬김으로 통일을 사는 한 날을

예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의 통일을 앞당깁니다.

모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통일 살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가중 물품 종류

의류 : 여성의류, 남성의류, 아동복, 유아복 등

(가능한 새 것같이 깨끗한 옷을 부탁드립니다.)

잡화류 : 가방, 모자, 스카프, 악세사리, 벨트, 신발, 장갑, 양말 등

생활용품 및 주방용품 : 그릇, 식기, 거실용품, 욕실용품, 각종생활도구 등

전자제품 및 운동기구 / 아동도서 및 완구류 / 스포츠 및 레저 용품

기타 판매가 가능한 물품 : 명절 추석선물세트도 가능

## 물품 기증 방법

기간 : 9/23(주일), 30(주일), 10/7(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2시 30분

장소 : 교회 앞마당

접수는 바자회 스텝 및 각 교구 도우미가 수고를 해 주십니다.

\* 이 외에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후원 부탁드립니다.(기업 후원 환영)

※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통일선교 구출사역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장소 : 정신여중고 본당 로비, 앞마당, 주차장 일대

주관 : 주님의교회 통일선교분과 위원회

협력 : 권사회, 안수집사회, 여전도회, 남선교회, 교구 등

물품 기증 안내 : 누구나 한 가지씩 기증으로 참여합니다.

알립니다

## 1. 거자씨 인도자 모임 개강

9/12(수) 소예배실(1층)

▶오전반 : 오전10:30 ▶저녁반 : 수요일예배 후

## 2. 퍼스펙티브 선교교육 모집

일시 : 9/13~11/29(12주) 매주 목 오후7:00~10:00

장소 : 제3집회실(1층) / 교육비: 8만원(주님의교회성도)

대상 :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

접수 : 9/9(주일) 1층 로비

문의 : 손영익 장로(010.2287.9258)

## 3. 호스피스 교육안내

일시 : 9/13~11/29 매주(목) 오후1:00~5:00

장소 : 각당복지재단 강당(종로구 경희궁1길 29)

교육비 : 교육비 13만원 중 본인부담 5만원

문의 : 소봉순 권사(010.5230.4120) (신청서는 1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 4. 정기당회 : 9/16(주일) 오후4:00 대회의실(4층)

## 5. 주방 휴무 : 9/23(주일) 추석 연휴 관계

## 6. 가을 운동회

일시 : 10/3(수) 오전 9:30~오후 4:00 (운동회 후 수요일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장소 : 정신여중고 운동장

참석 : 모든 교인 식구

문의 : 정원영 안수집사(010.5339.6464)

\* 아름다운 계절, 따뜻하고 즐거운 '가을 운동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